



28일 오후 진도군 고군면 오류리 해역에서 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들이 수중 발굴선 누리안호를 동원해 유물을 찾고 있다. 사진 앞쪽은 그동안 건져올린 청자 파편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오류리 쪽섬만 일대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370여점의 문화재가 발견됐다. /진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진도 오류리 해역에서 지난 16일 발굴된 높이 30cm 가로 20cm 길이의 청자반구형. 제작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 철분이 섞인 물감으로 무늬를 그리는 '철화문' 기법이 사용됐으며, 비취색 청자와 달리 갈색을 띄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양문화재연구소 제공)

## ‘이석기 사태’ 일파만파

국정원 이틀째 압수수색, 검찰 관련자 소환 시작  
진보당 “모든 혐의 날조”... 새누리·민주당 신중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대한 국가정보원의 내란 예비 음모 혐의 수사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은 29일 통합진보당 김근태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진보당은 “허위 날조”라고 부인하며 강력히 대처할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사정당국이 밝힌 혐의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진보당 자체가 존망의 갈림길에 서는 것은 물론 정국도 일거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국정원 개혁 문제가 정치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여야간 정쟁의 원인으로 작용하던 이 문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댓글 의혹으로 창설 후 초유의 국회 국정조사를 받았던 국정원이 야당으로부터 국내 패트 패지 압력까지 받는 상황에 처하자 조

지의 명운을 걸고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진보당은 당의 운명이 풍전등화 상황에 처한 만큼 거담적으로 총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 “저에 대한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며 “국정원이 진보와 민주세력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도 ‘공안사건’의 특성상 심각한 판단을 자제할 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 직원들은 이 의원실에 대해 이날 오전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했으나, 수색 범위를 두고 이 의원 측과 의견이 충돌하면서 지연돼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전남 체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날 밤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기자jy@kwangju.co.kr

## 진도 오류리 해저 쏘시대 걸친 ‘유물寶庫’

<삼국시대~조선시대>

### 2차발굴서 고려청자 등 280점 추가인양 삼국시대 수중 유물 국내 처음으로 발견

진도 앞 바다에 잠 들어 있던 보물이 1500년 만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진도 오류리 해저 유물 발굴이 시작된 지난 5월 이후 조선·고려 시대 뿐 아니라 1500년 전인 삼국시대 유물까지 발굴되고 있어서다. 지난 1976년 국내에서 수중 발굴 조사가 시작된 뒤 삼국시대 유물이

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370여점의 유물이 발굴됐다는 것이다. 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4월 28일부터 10월 말까지 2차 수중 발굴 조사를 진행중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이뤄진 1차 조사 때 발굴한 92점을 제외하면 2차 조사 때 무려 280여점에 이르는 보물이 쏟아졌다는 얘기다. 특히 이순신이가 이끄는 조선 수군이 명랑대첩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소승자총통(小小勝字銃筒)이 발굴됐던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삼국시대 유물이 드러나면서 발굴단

을 흥분시키고 있다. 청자·도자기 등 고려시대(12~13세기) 유물이 80%에 달하지만 수중 발굴 조사가 이뤄진 뒤 처음 햇빛을 본 사를 진행중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이뤄진 1차 조사 때 발굴한 92점을 제외하면 2차 조사 때 무려 280여점에 이르는 보물이 쏟아졌다는 얘기다. 특히 이순신이가 이끄는 조선 수군이 명랑대첩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소승자총통(小小勝字銃筒)이 발굴됐던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삼국시대 유물이 드러나면서 발굴단

이 이뤄지면 ‘보물 창고’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고려 뿐 아니라 수중 발굴 조사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조선·삼국 시대 유물 발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물살이 빠른 울돌목 인근 해역이라는 점에서 과거 침몰한 선박을 발견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내일 광주·전남 청소년 축제...광주 월드컵경기장 특설무대 ▶18면

제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9월1일 개막 ▶14면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주유비 지원 100만원  
문의 : 062-226-0001

## 이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9월호

8월 27일 발매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대한민국은 독서 중

특집

- ❖ 책 읽기의 진화, 보는 책보다 깨알 같은 재미 '듣는 책'
- ❖ 원복 원시티 운동으로 번지는 독서 르네상스의 현장
- ❖ 대한민국 출판 일면지 파주에서 바라본 한국 출판의 미래
- ❖ 책보다 더 재밌는 완주 책 박물관의 책 이야기

기획 **광주, 디자인을 만나다**

- 전문가가 말하는 디자인이란?
- 창조 도시 광주의 공공 디자인 점검
- 9월 개막하는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미리 보는 현장과 출품작들

###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디자인하우스 대표 이영혜

디자인에 생을 건 그녀의 디자인 철학과 삶의 이야기

마주인 책과 삶 **고전 교육자 김병조**  
인기절정의 개그맨이 고전 교육자가 된 사연 그리고 그의 삶을 이끌어온 책들

이달의 아티스트 **강렬한 스토리 만드는 창작 뒷이야기**  
신작 '28'로 독자 사로잡고 있는 **소설가 정유정**

세계 미술관 기행 I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  
**1억4천여 점의 소장품 '이것이 미국이다'**

문화역사 기행 **방랑시인 김삿갓, 지상의 마지막 노래 흐르던 곳**  
**화순 동복과 적벽**

컬처투어 **일본 가나자와시 '겐로쿠엔'**  
시간과 정성이 만든 아름다운 정원을 만나다

행복한 컬렉터 **석촌 수석박물관 오기배 관장**

문화 동행, 편편클럽 **생태세밀화 그리는 '담쟁이' 회원들의**  
지극한 자연 사랑 **"우리가 그리는 것은 생명"**

스타 데이트 **터프한 목포사이, 실은 부드러운 순정남**  
탈렌트 최진혁